증 례

원형탈모로 시작된 전신형탈모 환자에 대한 봉독약침 효과에 관한 임상증례보고

이승원 · 고정민 · 이소영 · 이민호 · 김영진 · 이승훈 · 유승연 · 정지윤 · 권효정 · 이윤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Abstract

A Case Study of Beevenom Effect on Alopecia Universalis Started from Alopecia Areata

Lee Seung-won, Ko Jeong-min, Lee Soh-young, Lee Min-ho, Kim Young-jin, Lee Seung-hoon, Yoo Seung-yeon, Chung Jie-youn, Kown Hyo-jung and Lee Yun-ho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Kyung Hee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the effect of beevenom on inhibition of Alopecia Universalis.

Methods : Beevenom was injected subcutaneously through the borderline of head scalp alopecia starting and, also, region feeling stiff tension.

Results : Hair falling off seized and scalp tension was vanished.

Conclusions : Beevenom seemed to inhibit the progression of Alopecia by recirculating the blood flow as stiff tension over head was solved and anti-inflammatory effect of beevenom seizing inflammation on the scalp. Further evaluation with big sample size control study would be required to manifest the rationale and effectness of Beevenom over Alopecia Universalis.

Key words : Bee venom, Aflotoxin, Alopecia, Hair, Circulation, Anti-inflammation

Ⅰ. 서 론

현대 사회는 산업화로 인하여 화학연료의 지나친 사용이 야기되면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산성비, 산성눈, 스모그 등의 자연적 재앙으로 인해 피부도 쉽게 노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신노동이 많아지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의 강도도 악화되고 있고, 육식화된 식단으로 인해 산화활동도 가속화되었다. 또한 노령 인구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 전반

· 접수 : 2008. 11. 14. · 수정 : 2008. 11. 30. · 채택 : 2008. 12. 1.
· 교신저자 : 이윤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1동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침구과
Tel. 02-958-9204 E-mail : yunholee45@hotmail.com

에 걸친 탈모 증상이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남녀에 걸쳐 넓게 보이고 있다. 그러한 반면 최근 미디어의 발달로 미적 부분이 한 개체에 있어 큰 장점으로 부각되며 특히 탈모에 대해 각 개인이 민감하게 대하고 있고 탈모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한 2차적 우울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고 있다. 탈모는 피부 노화, 안드로겐, 혈액순환장애, 스트레스, 자가면역질환 등으로 인하여 유발된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정작 확실한 치료약은 부재인 상태이다. 각 질환별로 대증적으로 치료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뚜렷한 치료효과를 보인다고 나온 치료약물도 부작용에 따라 사용에 많은 제한이 있다. 원형탈모의 경우 특히 스트레스 및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로 인해 자가면역질환이 유발되며 심해지면 융합을 보이며 전신형 탈모를 보이기도 한다. 한의학에서는 탈모를 髮落, 毛落, 鬢髮禿落候, 鬼舐頭候, 油風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원인으로는 腎虛, 氣血虛한 틈을 타 風邪, 風熱이 침입한다고 보았다. 또한 髮者, 血之餘라고 하며 血虛 혹은 瘀血로 인한 내상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얘기하였다. 내인과 외인이 합병적으로 작용하여 髮落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한방치료를 실시하게 되면 신체의 자율신경이 회복되고, 면역 기능이 향상되면서 탈모에 원활한 작용을 유도할 것으로 사료된다[10]. 또한 최근 한방적 탈모 치료에 대한 시도 및 치료 효과들이 논문으로 조금씩 발표되고 있다. 이에 탈모에 대한 한방적 치료의 효과를 제시하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원형탈모에서 전신형 탈모로 진행된 환자에게 봉독 약침으로 치료한 1례에 대해 보고를 실시하고자 한다.

Ⅱ. 치료 및 평가방법

1. 치료방법

1) 시술도구

시술에 사용할 봉독 원액은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한방제재실에서 제작한 봉독약침액(봉독분말 : 생리식염수 = 1 : 30,000)을 사용하였으며, 주입 부위를 시술전 알코올솜으로 소독한 후 1cc 주사침(화진양행 30 gauge)을 사용하여 주입하였다.

2) 시술방법

두피의 봉독 자입 위치에 알코올솜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봉독 약침액을 수용한 주사침을 대각선으로 두피에 근접하게 눕혀서 얕게 경피적으로 자입한 후 0.05cc 정도를 주입하였다. 직자가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혈관으로 보이는 부분은 피해서 자입을 실시하였다. 두정부 자입 시에는 정수리를 피하여 주입하였다. 시술 후에는 3시간 동안 샤워나 목욕 등을 피하도록 설명하였다.

3) 시술위치

두부의 탈모가 시작되는 경계선상에 1cm 정도 간격으로 띠를 두르듯 자입하였고, 두정부위에는 일단 당긴다고 표현하는 부위를 중심으로 주입하였고, 그 부근으로 하여 1cm 간격으로 격자모양으로 사각형을 그리듯 주입하였다. 봉독 주입을 실시한 점을 화살표로 표시하였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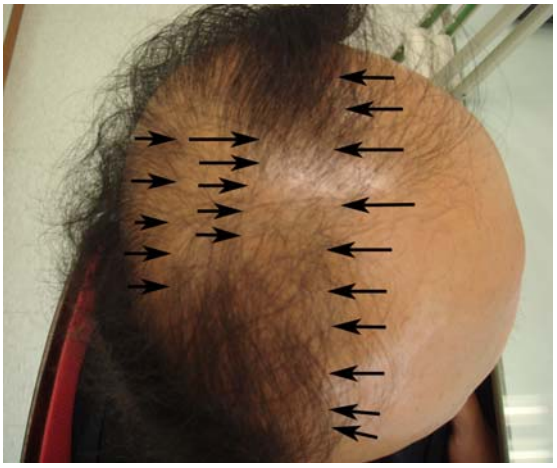


Fig. 1. Injection point

4) 과민성검사

봉독의 과민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부검사를 시행하였다. 피부검사는 환자의 전완에 1cc 주사침으로 1 : 30,000 봉독약침액을 0.05cc 주입하여 20분 후 국소즉시, 혹은 24시간 이내에 직경 5mm 이상의 팽진과 10mm 이상의 발적이 있거나 경련, 혼미 등의 전신증상을 양성반응으로 간주하였다[1].

5) 그 외 치료

환자는 뇌경색의 기왕력을 갖고 있어서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탈모는 멈추지 않았고, 그것이 탈모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작용을 관찰할 수 없었고, 뇌경색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양방 치료였기 때문에 복용을 지속하도록 권고하였다. 샴푸나 트리트

먼트, 영양제 등의 사용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았고, 도리어 1일 1회 가볍게 머리를 샴푸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꼭 머리를 수건으로 가볍게 닦고, 드라이어 등으로 말리도록 권고하였다.

2. 평가 방법

1) SALT(Severity of alopecia tool) scale

두부를 4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비율을 구분한 후 촬영된 사진 상 나타나는 탈모 영역을 각 구역의 비율과 곱하고 각 구역 간에 나온 값을 모두 합하여 탈모율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두정부는 40%, 측두부는 18%, 후두부는 24%로 각각 나눈다. 이를 근거로 탈모의 정도를 여러 군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S0 = 탈모 없음,
S1 = <25% 탈모,
S2 = 25−49% 탈모,
S3 = 50−74% 탈모,
S4 = 75−99% 탈모,
a = 75−95% 탈모
b = 96−99% 탈모
S5 = 100% 타로

이 S1−S4 구분을 원형탈모 지침서에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2].

환자는 내원 후 4번 봉독 치료 후마다 사진 촬영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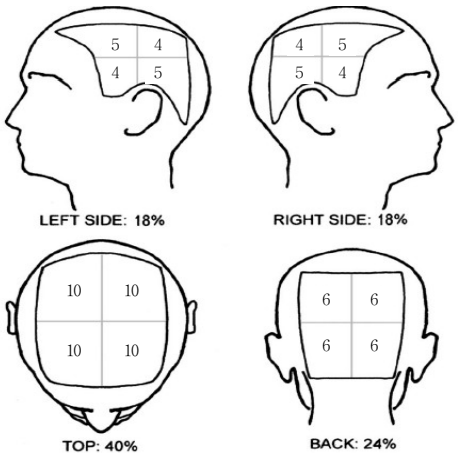


Fig. 2. SALT scale

2) 탈모 설문지

이전 병력, 탈모 상황, 탈모 진행상황, 탈모의 형태 등에 대한 탈모 설문지를 외국 논문에서 발췌하여 한글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탈모 치료의 기왕력, 과거력, 현재 복용 약물 및 가족력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첫 번째 내원시에만 실시하였다[2].

3) 한국형 삶의 질 평가 중 정신적, 사회적, 활력, 역할 평가

1999년 발표된 한국형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KoQoLS) 중 정신적, 사회적 건강 평가 기준 및 활력, 역할 평가 기준에서 부정적 질문 22가지와 긍정적 질문 4가지를 취합하여 피실험자가 일반 생활 속에서 자존적인 생활 유지를 잘 할 수 있는지 측정하고 20점 이상일 시에는 스스로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요하는 수준으로 보고 탈락요인으로 사료하였다. 환자가 첫 번째 내원시에만 사용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였다[3].

4) 스트레스 위험도 측정

보스턴대학의 밀러박사가 만든 스트레스 위험도 측정 테스트로서 20개의 문항이 주어지고 각 문항에 대해 5종류의 대답이 이루어진다. 각 대답에 대한 스트레스 위험도 지수는 항상 그렇다(1점), 자주 그렇다(2점), 가끔 그렇다(3점), 드물게 그렇다(4점), 절대로 그렇지 않다(5점)로 체크하고 20개 항목의 점수를 합하고 그 합계에서 20을 뺀 것이 스트레스 위험도 지수이다. 이 스트레스 지수가 30점을 초과하면 일단 스트레스위험에 직면에 있다는 증거이다. 이 지수가 50−75점이면 스트레스 위험도는 심각한 상태이고 75점 이상이면 중증의 스트레스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환자 방문 시마다 측정하였고, 스트레스의 변화도를 이를 통해 측정하였다[4].

5) Visual analogue scale(VAS)

탈모진행상황(Alopecia)에 대한 VAS scale을 시도하였고, 탈모가 악화되어 가장 심한 상황을 10점, 탈모가 전혀 없고 머리가 나는 상황을 0점으로 하고 5점은 탈모가 있으나 심하지 않은 상황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두피의 당김 증상이나 전반적인 건강상태(Tension)에 대한 VAS를 측정하여 가장 나쁜 상황을 10점, 좋은 상황을 0점으로 측정하였다. 이렇게 2개의 VAS scale을 실시하였고, 환자가 내원시마다 측정하였다.

Ⅲ. 증 례

1) 환자

손OO, 38, 남자

2) 진단명

원형탈모(자가면역질환), 전신형 탈모

3) 주소증

두피 탈모, 전신 탈모(눈썹, 복부, 음모 탈모), 두정부 당김 증상

4) 발병일

1992년

5) 과거력

뇌경색 : 2003년 발병하여 입원치료 실시함. 현재 항혈전제 복용 중

모야모야 병 : 2003년 자기공명장치 실시상 확인됨

복사뼈 골절 : 2008년 운동중 골절되어 고정 붕대 실시함

6) 현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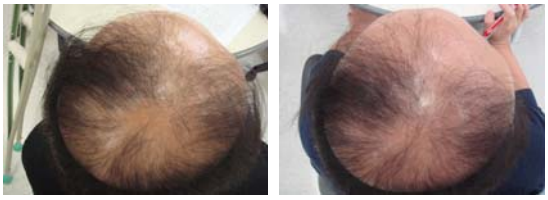
현 38세 남자 환자로 1992년 원형탈모가 발생하여 서울대병원을 방문하여 자가면역질환으로 진단 받고 면역치료 Diphenylcyclopropenone(DPCP)를 6개월 정도 실시 후 부천 성심병원, 지역 피부과에서 면역치료를 지속하였다. 아주대병원에서 2년 정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실시하였고, 당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있던 1999년 무렵 증상이 90% 정도까지 호전되었다. 2000년 취직하고 난 후 탈모가 다시 진행되었으며, 그 당시부터 전신 탈모 시작되었으나 치료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두부 탈모는 80% 정도로 호전되었다가 2002년부터 다시 악화되었고, 전신 탈모는 2000년 시작 이후 계속 악화되었다. 이러던 중 2008년 9월 2일 탈모에 대한 한방 치료를 위해 외래에 내원하였다.

7) 초진 소견

환자는 모야모야로 뇌경색을 앓은 기왕력이 있고 복사뼈 골절로 고정붕대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로 내원하였다. 내원 시 환자는 두부의 전체적인 탈모 및 눈썹, 액와, 사타구니의 음모, 팔·다리, 가슴 복부의 체모 등이 이미 거의 탈모가 진행된 상태였다. 탈모는 두부로부터 시작되었고, 사지에서부터 흉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부쪽 체모까지 진행되었다고 표현하였다. 특히 전신 탈모의 경우는 8년 동안 호전을 보인 경우가 전혀 없다고 표현했다. 첫 내원 당시에도 자고 일어나면 계속적으로 머리가 많이 빠지고 특히 머리가 빠지기 전에는 머리가 많이 당겼다고 표현하였다. 직장을 프로그래밍 회사에 다니다 보니 머리쓰는 일이 많고 야간작업이 많아 잠을 잘 못 잔다고 표현하였다. 있는 머리카락도 매우 듬성듬성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고 지루성 피부염은 관찰되지 않았다.

8) 치료 경과

2008. 9. 2



2008. 9. 16　　2008. 10. 2

2008. 10. 21

Fig. 3. Alopecia status in photo

Fig. 4. Stress risk, tension VAS, alopecia VAS

Table 1. Stress Risk, Tension VAS, Alopecia VAS, Salt Scale

	9/4	9/9	9/11	9/16	9/18	9/23	9/25	9/30	10/2	10/7	10/9	10/14	10/16	10/21
스트레스 위험도	37	36	38	36	40	45	48	46	36	46	48	45	45	38
Tension VAS	5	5	3	3	1	1	1	1	1	1	1	3	1	1
Alopecia VAS	7	7	3	3	3	3	4	3	3	3	3	3	3	3
SALT Scale(%)	39.8					43.0				38.6				43.0

첫 방문 때 치료방법 및 계획에 대한 설명과 벌침 치료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발진, 팽진, 쇼크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과민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 참가에 대한 동의서를 얻고, 두 번째 방문부터 14번의 봉독치료를 실시하였다.

2008. 9. 2 : 첫 내원과 함께 동의서, 정서적 삶의 질 설문지, 탈모 과거력 등 청취함

2008. 9. 16 : 머리카락이 굵어진 것 같다고 표현하며, 당김 증상도 사라졌다고 표현함

2008. 9. 18 : 당김 증상이 사라지면서 수면 잘 취했다고 표현함

2008. 10. 7 : 이사 및 직장 내 부서 이동으로 술자리를 하며 스트레스 많이 받음

2008. 10. 21 : 마지막 봉독 치료 시 다시 머리가 약간 빠지는 것 같다고 표현함.

Ⅳ. 고 찰

모발은 포유동물만이 가지고 있으며 피부의 부속기관으로서, 발생학적으로는 피부 표피에서 생긴 것이다. 모발은 한랭, 마찰 등을 막아주는 신체 보호의 역할을 하고 촉각을 전달하며, 제2차 성징에 관여하고, 심미적인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한다. 발생 부위에 따라 머리카락의 경우는 태양광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고 눈썹과 속눈썹은 햇빛이나 땀방울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콧속의 털은 외부자극 물질을 걸러내는 작용이 있으며, 피부가 접히는 부위의 모발은 마찰을 감소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최근에는 심미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으며 머리를 통한 스타일 변화를 꾀하는 이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다. 모발 생성은 태아기 때에 피부의 모모세포가 성장하여 피부 내에 깊게 침투해 모낭을 형성한다. 이때 모모세포는 모발에 관련된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

받는다고 한다. 모낭의 제일 아래 부분에는 모유두가 형성되는데 이 모유두에서 아미노산을 받아 케라틴을 형성하여 모발을 만들어내고, 모유두 내에는 아미노산의 합성을 통한 케라틴 단백질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 모세혈관과 자율신경이 들어있다. 모발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를 갖고 모유두에서 계속 성장하고 탈모된다. 성장기는 3-6년이고, 퇴행기는 1-1.5개월, 휴지기는 4-5개월 정도로 이 과정을 거치면 자연히 탈모된다. 매일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다시 나며 1개월에 1cm 정도씩 성장한다고 한다.

탈모는 이러한 모발 생성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되어 모유두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얘기한다. 이러한 원인으로 단백질 합성 효소에 호르몬 및 비타민, 미네랄 등의 보조적 요소가 결핍되어 그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고, 아미노산을 수송하는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단백질 합성에 명령을 내리는 자율신경이 원활하지 못하면 모발 생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외상이나 염증 혹은 모유두가 손상되어 영구히 모발이 생기지 않는 반흔성 탈모증도 생길 수 있다. 탈모를 형태별로 나누면 넓은 범위로 탈모하는 광범성 탈모, 탈모된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분의 구별이 분명한 국한성 탈모, 한번 치료된 후 어느 정도 시간 경과가 되고 다시 탈모하는 재발성 탈모를 들 수 있다. 원인별로 나누어 보면 자율신경장애나 자가면역적 알레르기 증상, 심상성 문제로 인해 원형탈모증이 유발될 수 있으며,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삼차신경통 등에 의해 신경성 탈모증이 발생될 수 있고, 비타민 A, D의 부족에 의한 두피 각화의 비정상이나 위장장애, 빈혈결핵, 신경쇠약, 세발불량, 두피압박 등으로 인해 비강성탈모증이 생길 수 있다. 피지분비 과잉으로 인해 지루성 탈모증이 발생될 수 있고, 남성 호르몬 과잉과 유전인자에 의한 상승작용으로 장년성 탈모증이 유발될 수 있으며, 모유두 조직의 노화나 유전적 요인, 두피 경화로 노인성 탈모증이 발생될 수 있다. 그 외에 산후, 열병후, 약물 중독, 매독, 나병 등으로 인해 탈모증이 야기될 수 있다[11].

양방에서는 남성형 탈모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5-alpha-reductase에 의해 활성화 형태인 Dihydrotestosterone으로 변형되면서 모낭이 축소되고, 성장기보다 휴지기의 기간이 비율상 더 길어지고 이로 인해 탈모를 유발시킨다. 현재 5-alpha reductase inhibitor인 Propecia(Finasteride) 제재가 사용되고 있는데 분명한 치료효과를 내복약으로 보이고 있으나, 이로 인해 여성 호르몬의 상대적 과잉으로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8].

FDA 승인을 받은 Minoxidil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는 처음 고혈압 약으로 사용되었으나 혈액순환 개선이 이루어지며 부차적으로 발모 효과를 보여 현재는 발모제로 통용되는 바르는 약으로서, 이 또한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 피부발진 등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고 있다[9].

원형탈모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한 염증 질환으로 보고 면역치료로 DPCP(Diphenylcyclopropenone), DNCB (Dinitro chlorobenzene), SADBE(Squaric acid dibutyl ester)를 사용하고 있으나 DNCB의 경우는 변이 유발이 가능하고, SADBE는 화학적 불안정성을 나타내고 있어 DPCP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DPCP는 표피에 접촉성 피부염과 같은 염증 작용을 유발하여 면역체계를 둔감시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항염증 작용을 유도하는데, 이로 인해 수포, 팽진, 발포, 소화불량,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도리어 반흔을 남겨 부작용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6]. 또한 건선치료제로 쓰이는 Anthralin치료제의 사용을 얘기하고 있으며, 전신적 스테로이드 치료, 국소 자극제, 접촉 면역 치료, 광화학 요법, minoxidil 국소 도포 등을 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6,7].

한의학에서는 탈모를 髮始墮, 髮落, 毛落, 毛折, 鬢髮禿落候, 鬼舐頭候, 油風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원인으로는 일단 내인으로 腎虛, 肺氣虛, 血熱, 氣血虛, 血虛, 瘀血, 七情 등을 들고 있으며, 외인으로는 風邪, 風熱, 濕熱, 五味傷, 蟲, 火 등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海艾湯, 桂枝加龍骨牡蠣湯, 補中益氣湯, 六味地黃丸이 있으며, 외인으로 인한 처방으로는 防風通聖散, 神應養眞丹이 있다. 문헌에서는 이 중 飮食傷, 勞倦傷, 腎虛, 風邪를 큰 원인으로 얘기하고 이에 대한 변증에 준하여 치료약을 처방하였고, 憤怒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고전논문에서도 탈모에 대해 스트레스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 외용약으로 麥芽散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10].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 가운데 한의학과 관련된 2개의 탈모 논문을 찾을 수 있었는데 두 논문 모두 홍화약침을 사용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홍화는 약성이 溫하며 活血通經, 散瘀止痛시킨다고 본초학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탈모의 문헌적 고찰에 보면 髮에 대해 血之餘라고 하며 血과의 밀접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으며 瘀血로 인해 이러한 탈모가 발생할 수 있

다고 원인에 적고 있다. 양방에서도 모낭을 영양하는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탈모가 진행될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봤을 때 홍화약침의 사용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다. 두 논문 모두 한 치료만 실시한 것이 아니라 체침, 홍화약침, 봉독약침 등을 병행 사용하고 때로는 한약 치료도 실시한 경우가 있어 그 치료 효과에 대해 치우침이 존재할 수 있으나 탈모에 대한 한방치료의 가능성을 알아본 훌륭한 논문이었다[12,13].

봉독약침은 性味가 有毒하여 祛風除濕하고 鎭痛, 消炎, 면역증강, 순환촉진, 항균 작용을 한다고 한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양방적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는데 봉독 내에 존재하는 Mellitin이 phospholipase A2와 결합하여 면역 효소 작용을 막고 Apamin과 함께 콜티솔 분비를 유도하여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MCD peptide는 mast cell에서 히스타민을 분비시킨다고 얘기하고 있다[14].

본 환자는 뇌경색을 앓았고, 남자로는 드물게 모야모야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로 기본적으로 뇌혈액 순환에 장애를 보이는 환자였다. 모야모야 질환의 경우 경부 혈관의 선천적 기형으로 순환이 안 되어 후대뇌동맥의 우회가 생기면서 뇌혈액 순환을 하는 구조로서 뇌쪽으로의 전반적 혈액순환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질병이다. 또한 1992년부터 원형탈모를 앓고, 이 질환이 진행되어 현재 전신형 탈모증세를 앓고 있는 상태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환자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여러 병원에서 면역치료, 스테로이드치료, Minoxil 치료를 받아보았다. 면역치료로 DPCP를 실시하였는데 스테로이드 치료와 함께 실시한 후 치료 호전을 보였으나 머리 전체가 화끈거리며 발진이 넓은 부위로 생겨서 굉장히 불편했었다고 표현하였다.

환자는 뇌경색의 기왕력을 갖고 있으며, 조그마한 스트레스도 크게 받으며, 두통 및 특히 두정부의 일정 영역에 머리 당김 증상으로 수면을 잘 취할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瘀血이 생기게 되면 血이 한 군데에 뭉쳐 고정된 통증을 나타나 四肢冷, 大便黑 등을 보인다고 고전문헌에 나타나 있으며 이는 타박이나 월경 후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15]. 이번 환자의 경우 고정된 위치에 계속적 당김 증상 및 두통, 불면과 두뇌부의 혈액순환 장애, 뇌경색으로 인한 두부 충격이 있으며 탈모가 진행되어, 頭部가 血瘀하여 탈모가 유발된 것이 아닌가 한방적으로 진단 내려 보았다. 또한 봉독의 경우 면역치료제인 DPCP와 같이 피부에 발적 및 소양감 등을 유발하며 면역체계를 과감작시켜 결과적으로 둔감시키며, Mellitin, Apamin 등이 항염증 작용에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 환자는 Tension VAS상 5 정도로 계속 당기던 머리가 봉독 치료를 실시하여 처음에는 맞고 한 시간 정도 멍하다가 그 후에는 맑아지면서 3차례 정도 봉독치료를 실시한 후 당김증상이 사라졌다고 표현했다. 이로 인해 수면을 잘 이룰 수 있었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항상 당김 증상이 있은 후 심해지던 탈모가 당김 증상이 사라지고 탈모도 멈추었다고 얘기했다. 약 2달간에 걸쳐 진행된 치료에서 사진을 보면 탈모가 더 이상은 진행되지 않고 유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SALT scale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 용적을 구했으나 사진을 찍은 위치가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용적의 차이가 도리어 많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었다. 머리가 빠지지 않고 도리어 9/16일에는 환자가 머리카락이 굵어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에 2007년 9월 내원한 뇌경색 환자 1례를 대상으로도 동일한 봉독약침 치료를 실시하여 원형탈모를 앓고 있던 환자가 탈모가 멈추고 심지어는 발모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던 치험례가 있으나 이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남기지 못해 치료 사례를 고찰 부분에 언급하는 것으로 끝마쳐야 하나 이번 사례에서도 봉독약침만을 두피에 실시하고 탈모가 방지되었다.

이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봉독약침을 사용함으로 인해 活血작용을 하여 두피 내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소염작용을 통해 계속적으로 유발되던 탈모현상을 지연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스트레스 위험도 체크에 의하면 환자는 봉독약침을 맞고 있는 경우에도 스트레스는 더 높아졌다 낮아진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10월 초에 직장 내 부서 이동 및 집안 이사를 실시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표현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높은 스트레스 수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이전과 달리 탈모가 방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신청된 탈모에 관련된 특허 조사 현황을 보면 발모제 관련 특허가 80건, 육모제 관련 특허가 25건, 탈모방지 관련 특허가 139건으로 탈모방지용 약품이 단연 압도적이다. 이러한 특허 물품들도 검은깨, 석창포, 검정깨, 도토리 등 생약 성분 종류가 많고 그 효과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5]. 양방에서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미녹시딜, 프로페시아, 크

레시나 등을 다용하고 있는데, 이 중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유일한 약제는 크레시나이다. 크레시나의 경우 모근에 영양공급을 원활히 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며 이는 탈모방지제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탈모방지만으로도 탈모에 대한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번에 실시한 봉독약침의 경우 부작용을 거의 보이지 않으면서, 머리 당김 증상을 개선하고 탈모방지 효과를 보인 것에 큰 의미를 둔다고 하겠다. 단 본 연구는 1례의 적은 표본 크기를 갖고 있기에 그 성과를 과대평가하기에는 매우 무리이고, 계속적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후에는 더 큰 표본을 갖고 무작위 대조군을 포함하는 엄격한 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2008년 9월 2일부터 2008년 10월 21일까지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에 내원한 남자 환자 1례에 대해 봉독 약침 치료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원형탈모로 인한 전신형탈모에 대해 봉독약침 치료를 실시하여 두피 내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가져오며, 봉독약침이 유발하는 발진, 팽진 등이 항염증 작용을 유도하여 탈모의 발생을 방어한다고 사료된다.
2. 봉독약침 치료를 통한 원형탈모 및 두부에 생길 수 있는 두통이나, 당김 증상 등에 대해 무작위 대조군을 포함한 대규모 임상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VI. 참고문헌

1. 김행범, 이로민, 이민호, 최양식, 김종인, 이윤호, 이재동.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에서 근육 내 봉독약침과 피내 봉독약침의 효능 비교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8 ; 25(2) : 151-64.
2. Olsen EA, Hordinsky MK, Price VH, Roberts JL, Shapiro J, Canfield D, Duvic M, King LE Jr, McMichael AJ, Randall VA, Turner ML, Sperling L, Whiting DA, Norris D. National Alopecia Areata Foundation ; Alopecia areata investigational assessment guidelines－Part II. National Alopecia Areata Foundation. J Am Acad Dermatol. 2004 Sep ; 51(3) : 440-7.
3. 이정권, 신호철, 심재용, 선우성, 박훈기, 원장원, 김수영. 한국형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의 개발－증상채집에서 사전조사까지. 가정의학회지. 1999 ; 20(10) : 1197-208.
4. Miller LH and Smith A. Boston University Medical Center ; A Positive Approach to Stress Management. ; Appleton, WI : 1983.
5. 최원준. 발모제, 육모제, 탈모방지 특허동향에 관한 연구－2006년 11월 기준으로. 한국두피모발미용학회지, 2007 ; 3(1) : 27-37.
6. 이승규, 신정현, 최광성. 광범위한 탈모범위를 지닌 원형 탈모증 환자의 Diphenylcyclopropenone(DPCP) 면역 치료 효과. 대한피부과학회지. 2004 ; 42(9) : 1130-7.
7. 홍원규, 신정현, 최광성. 광범위한 탈모범위를 지닌 난치성 원형 탈모증 환자의 Anthralin 국소 치료의 효과. 대한피부과학회지. 2008 ; 46(5) : 641-7.
8. Sinclair RD, Dawber RP. Androgenetic alopecia in men and women. Clin Dermatol. 2001 Mar-Apr ; 19(2) : 167-78.
9. 이승동, 강태욱, 박영민, 김시용, 김형옥, 강훈. 탈모증 환자에서 미녹시딜 용액 사용 실태에 관한 이메일 설문 조사. 대한피부과학회지. 2008 ; 46(2) : 216-23.
10. 장해영, 최관호, 김성현, 권기록, 김병우. 탈모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약침학회지. 2002 ; 5(2) : 92-108.
11. 김한식. 모발생리학. 현문사. 1997.
12. 이태후, 문정배, 김영진, 안경애. 남성의 안드로겐성 탈모증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효과. 대한침구학회지. 2006 ; 23(1) : 179-86.
13. 김경운, 서정철, 이경민, 임성철, 정태영, 한상원. 봉약침과 홍화약침을 이용한 원형탈모증 치험 1례. 대한약침학회지. 2004 ; 7(2) : 91-6.
14. 최정식, 박장우, 오민석. 봉독요법(蜂毒療法)의 항염증 기전(機轉) 연구에 관한 고찰. 한의학논문집. 2006 ; 15(1) : 141-60.
15. 허준. 동의보감. 법인문화사. 1999 : 698.

【부 록】

Table 1. 탈모에 대한 설문지

성명 : 참여 날짜 : 나이 : 성별 :

첫 번째 탈모 발병일		과거력	
현재 탈모 발병일			
유지기간			
과거 탈모 발병 횟수		현재 복용 약물	
전신 탈모의 발병기간			
탈모 6개월 전 두피 감염 사례(위치)		탈모 치료 기왕력	
탈모 6개월 전 두피 감염 사례(형태)			
주된 모발 색상			
탈모 형태	a. 원형 b. 타원, 막대형 c. 전신형		
신체의 탈모	a. 0% b. 존재함 c. 100%	현재 탈모 치료 현황	
조갑 변화상황	a. 0% b. 존재함 c. 100%		

가족력	본인	부	모	자	녀	형제	자매	조모	조부	외조모	외조부	이모	외삼촌	고모	삼촌
아토피 피부염															
아레르기 비염															
천식															
갑상선질환															
백반증															
당뇨															
홍반성 루프스															
악성 빈혈															
류마티스 관절염															
궤양성 장염															
복강내 질환															
건선															
자가면역 질환															
다운 증후군															
면역결핍 질환															
기타															

Table 2. 생활 건강 설문 – 최근 4주간 생활형태에 대해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오.

1. 소극적이고 자신이 없다. ( )
2. 재미가 없고 의욕이 나지 않는다. ( )
3. 공연히 걱정이 생긴다. ( )
4. 속이 상하고 실망한다. ( )
5. 작은 일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긴장이 된다. ( )
6. 혼자라는 느낌이 들고 외롭다. ( )
7. 우울한 느낌이 든다. ( )
8. 공연히 불안하고 초조하다. ( )
9.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짜증스럽다. ( )
10. 즐겁고 행복감을 느낀다. ( )
11.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여유가 있는 편이다. ( )
12. 기분이 좋고 만족스럽다. ( )
13. 친척들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지 못한다. ( )
14. 집안의 대소사에 참가하기가 어렵다. ( )
15. 평소에 하던 취미 생활, 여가 활동을 하기가 힘들다. ( )
16.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다. ( )
17. 쉽게 피곤함을 느낀다. ( )
18. 쉽게 지치지 않는다. ( )
19.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지 못한다. ( )
20. 내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 ( )
21. 평소에 하던 집안 청소를 하지 못한다. ( )
22. 평소에 하던 쇼핑이나 장보기를 하지 못한다. ( )
23. 식사 준비나 설거지를 하지 못한다. ( )
24. 빨래를 하거나 주위 친척을 돌봐주는 것이 힘들다. ( )
25.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룬다. ( )
26. 평소에 비해 일 능률이 떨어진다. ( )

Table 3. 스트레스 위험도

항 목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드물게 그렇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1. 나는 하루에 적어도 한 끼는 균형된 식사를 한다.					
2. 1주일에 적어도 4일간은 7-8시간 잠을 잔다.					
3. 누구와 사랑을 주고 받는다.					
4.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에 살고 있는 친척과 자주 접촉한다.					
5. 1주일에 최소한 두 번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한다.					
6. 하루에 담배를 반 갑 이상은 피우지 않는다.					
7. 1주일에 술을 5잔 이상은 안 마신다.					
8. 키에 맞는 정상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9. 기본적인 지출을 충당할 정도의 수입이 있다.					
10. 신앙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11. 정기적으로 사교모임, 사회활동에 참여한다.					
12. 친구, 친지들과의 연락이 잘 되고 있다.					
13. 친한 친구가 있어 답답한 개인 사정이 있으면 만나서 털어놓는다.					
14. 건강한 편이다(시력, 청력, 치아 등을 포함, 종합적으로 그 정도로 판단할 것).					
15. 화가 나거나 근심이 있을 때 내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는다.					
16. 함께 사는 사람들과 집안일이나 금전, 일상생활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17. 1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취미나 오락을 즐긴다.					
18. 자신의 스케줄을 스스로 결정하여 생활하고 있다.					
19. 하루에 커피나 청량음료를 3잔 이상은 마시지 않는다.					
20. 낮 시간에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					

당김 증상에 대한 VAS |----------|----------|

탈모 증상에 대한 VAS |----------|----------|